

## 광주시, '재난안전산업 신기술' 수상작 선정



2026 재난안전산업 신기술 공모전 수상자들이 시상식 후 상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시청 제공

### 현장 필요성·사업화 가능성 고려 인공지능 기반 기술 3개 선정 시장상·시상금 수여...9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3일 시청 충무시실에서 재난안전산업 분야 신기술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6 재난안전산업 신기술 공모전' 심사를 진행했다.

'재난안전산업 신기술 공모전'은 산업현장 도입 필요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 8회째를 맞았다.

심사 전문가 7인이 참여한 이날 심사에서는 시청자 자료(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수상작 3개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 대상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이 제안한 'AI 기반 도시 회복력(Resilience) 연쇄 재난 예측·자율복원 플랫폼(AURORA)'이 수상했다. 또 우수상에는 김대운 씨가 제안한 '지능형 AI 에이전트 기반 안전 보장 파트너: 세이프티 페어'를, 장려상에는 트레시스씨가 제안한 '재난임무 종사자의 도덕손상 기

반 AI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선정했다.

'AI 기반 도시 회복력(Resilience) 연쇄 재난 예측·자율복원 플랫폼(AURORA)'은 광주시의 전력·통신·교통·상하수도 등 도시 생존망(Lifeline)을 통합 관리해 연쇄 재난을 예측하고 도시 기능의 지속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지능형 AI 에이전트 기반 안전 보장 파트너: 세이프티 페어'는 단독 작업자의 사고 발생을 신속히 발견해 위치정보를 전송, 골든타임 내 구조 가능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재난임무 종사자의 도덕손상 기반 AI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은 재난임무 종사자가 재난현장에서 경험하는 도덕적 손상, 외상 반응, 직무 스트레스를 조기에 선별·관리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광주시는 수상자들에게 광주시장상과 시상금을 수여하고, 오는 9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12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관 부스에 참가할 수 있게 제안 기술 홍보를 지원한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재난안전산업 분야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재난 예방, 대응, 복구 전 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광주시는 우수 기술이 지역 산업과 연계돼 실증 및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도시 구현에 힘쓸 방침이다. /이유빈기자

## 현대자동차,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 신규 참여 4개 기관 발표

현대자동차는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Hyundai Translocal Series)'에 '울산시립미술관(대한민국 울산)'과 '뉴 뮤지엄(New Museum, 미국 뉴욕)',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대한민국 서울)'

과 '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Abu Dhabi Music & Arts Foundation,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이 새롭게 참여한다고 23일(화) 밝혔다.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는 국내외 예술 기관 간 지속 가능한 협

관계 구축을 위해 공동 연구와 신작 커미션, 전시, 연계 프로그램, 출판까지 교류의 전 과정을 폭넓게 지원하는 파트너십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예술 기관들이 주목하는 초지역적 주제를 각 지역의 문화적 맥락과 함께 조망하며 새로운 예술적 담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에 울산시립미술관과 뉴 뮤지엄, 서울시립 서서울

미술관과 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이 새로운 협력 기관으로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며, "급속히 변화하는 문화지형도 안에서 다양한 관계성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지역과 문화를 잇는 의미 있는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울산시립미술관·뉴 뮤지엄, 예술과 기술 융합 중심으로 협력 전개  
울산시립미술관과 뉴 뮤지엄은

예술과 기술 융합을 중심으로 울산과 뉴욕을 잇는 협력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동시대의 주요 의제를 각 지역이 지닌 문화적 맥락 속에서 탐구할 예정이다.

2022년 1월 개관한 울산시립미술관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미래형 미술관을 지향하며, 회화·조각·뉴미디어·설치 등 매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전시 및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인 예술 담론을 깊이 있게 공유해왔다. 뉴 뮤지엄은 1977

년 설립 이후 지난 3월 신관 개관에 이르기까지 동시대 작가들의 새로운 예술과 아이디어를 조명하며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예술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두 미술관은 향후 3년간 매년 1회씩 총 3회의 전시를 공동 기획하며, 울산시립미술관의 미디어 아트 전용관 XR 랩과 뉴 뮤지엄 신관 엘리베이터 스크린에서 각 기관의 공간 특성을 반영한 장소 특장점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유빈기자

**토지권원 95.2% 달성! 조합원 모집 신고필!**

**조합사업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조합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양동현대지역주택조합